

직물용어 해설-01

* 거니직물(gunny cloth)

일반적으로 황마사를 경사, 위사에 사용한 마대용 평직물 또는 능직물을 말한다.

* 거즈(gauze, gaze)

약연사로 평직으로 짜고 표백 후 풀을 먹이지 않고 다듬질한 것으로 위생용 재료, 내의 등에 사용한다. 가제라고도 한다. Gauze는 프랑스어의 gaze에 해당하고 아라비아어의 ghazzah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팔레스타나의 서남 해안에 있는 도시 Geza 항구에서 짜온 것으로 이러한 종류의 직물의 기원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거즈, 고오즈, 가제라고 명명되는데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면 평직물의 얇은 천
- ② 견 평직물의 얇은 생지로 여름용 여성의 스커트의 안감
- ③ 메리야스의 얇은 천
- ④ 압박 붕대류로 제작

주로 평직으로 제작되나 압박 붕대와 같은 것은 사직이나 여직으로 제작한다.

용도는 원피스, 블라우스, 장식, 커튼, 여름 옷, 우척(羽尺), 긴소매 등이다.

* 편사(Chintz, Sarasa)

사용섬유로는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등을 사용하는데 날염의 색 맞춤과 모양에 특징이 있다.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기하학적인 모양이라던가 또는 도안화한 꽃, 새, 인물 등의 모양을 날염한 것을 총칭한다. 중국에서는 화포, 인화포 등이라고 한다. 세계 각지에서 특유한 풍격이 있는 경사(batik)라

고 부르는 것으로써 인도네시아의 특산이다. 납방염의 방법으로 날염을 한다. 염색 건뢰도가 높고 독특한 색조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천에 남는 방염납 때문에 특징이 있는 매끄러운 촉감과 광택이 있다.

납방염에 의한 모양염(batik printing, batik dyeing)은 고대 남부 아시아의 문명국에서 넓게 행하여져 왔다. 일본에서는 납힐(蠟纈 : 백랍과 수지를 섞은 것으로 천에 무늬를 그려 염료에 담근 후 그 납을 제거하여 그 부분만 백색으로 남기는 방식)이라고 부르고 협힐(板締防染), 괄염(括染)과 더불어 3힐의 하나이다.

현재는 수공예적인 성질이 짙으나 납힐염으로 기모노, 깔개, 보자기, 포럼(상점 입구의 처마 끝이나 점두에 치는 막) 등에 응용되고 있다. 모양이 없는 바닥 부분이라던가 또는 모양부분만을 남기고 직물 전면에 녹인 밀랍을 칠하여 납이 녹지 않는 온도에서 침염한다. 납을 칠한 원단을 문질러서 납에 가는 금을 넣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침염하면 금이 있는 곳에 염료가 조금 침입하여 방염되고 남은 백색 원단에 잔금의 형태로 되는 모양이 염색된다. 이것을 납할(蠟割)이라고 부른다.

영국, 미국에서 chintz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부르는 편사와는 다소 다르다. 즉 경사에 꼬임이 많은 실을 위사에는 약간 울이 굵은 감염의 실을 사용한다. 조직은 치밀하다. 모두 날염되고 있으나 날염 무늬는 크지 않고 꽃, 새 등을 도안화한 것이 많다. 색조는 일본의 경사와는 다르고 밝고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은 것이다. 모소하고, 두껍게 호부한다던가 납칠 하여 플렉션 칼렌더링을 한다. 광택이 풍부하지만 세탁하면 탈락하여 버린다. 에버글레이스에 의하여 친즈 효과를 나타낸 것은 세탁하여도 광택은 없어지지 않는다. 편사의 어원으로는 정설은 없다. 옛날 이러한 품종의 수출지였던 인도의 지명 Sarat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도 하고 아름다운 직물을 의미하는

인도 어의 sarasa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불려지고 포르투갈 어의 saraca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한다. Chintz는 원래 인도 산의 날염 포의 이름이었다. 이러한 명칭은 힌두스탄 어의 chint, 산스크리트 어의 citra로부터 명명된 것으로 원어의 의미는 얼룩이었다. 용도로는 커튼, 드레스, 가구 덮개, 아동복, 방석용, 깔개 등이다.

* 개버딘(Gabardine, Gaberdine)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면, 모, 비닐론, 아크릴 등을 사용하여 사문직으로 제작한 원단을 말하며 약칭하여 개버라고도 한다. 사문선이 위사 방향에 대하여 45°이상 또는 63°가 되도록 경사 밀도를 많게 한 3/1 급사문이라던가 2/2, 2/1 등의 정척 사문으로 제작한다. 중세기에 사용하던 망토, 외투라는 뜻이며 경사 밀도를 위사 밀도보다도 2배 이상이 되도록 현저히 많게 하기 때문에 정척 사문으로 제작하여도 능선을 급한 각도로 나타낸다. 표면에서는 능선이 강하게 부출하여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표면만큼 능선이 확실하게 서지 않는다. 모 개버딘은 경위사 모두 소모사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는 경사만을 소모사를 사용하고 위사에는 방모사를 타입한 것도 있다. 능선은 통상 좌하로부터 우상이다. 경사에 60's, 50's, 48's~30's의 쌍사, 위사에 같은 정도의 쌍사라던가 굵은 울의 단사를 사용한다. 통상필염으로 한다.

면 개버딘은 서지 직물과 같이 평범한 소모 직물의 대표적인 것이며 어느 정도 수요가 넓은 직물이다. 개버딘과 서지의 차이는 경사와 위사의 밀도의 차이로써 경위사를 근사한 울수로 제작한 것이 서지이고 경사가 위사보다 훨씬 많게 하여 제작한 것이 개버딘이다. 그러므로 사문선의 각도는 서지가 45°정도 개버딘이 65°정도로써 개버딘이 급각도로써 표면에 경사가 많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면 개버딘은 경사에 40's/2 또는 60's/2를 사용하고

위사에는 경사와 동일 변수나 20's/1 또는 30's/1을 사용하여 모직물과 같이 경사 밀도를 위사 밀도보다 많게 하여 2/2 또는 3/1의 사문직으로 제작한다. 40's 또는 45's의 쌍사, 위사에 경사와 같은 변수의 쌍사 또는 20's라던가 30's 단사를 사용한다. 감색, 다색 등으로 무지염하던가 표백한다. 급경사의 치밀한 가는 능선을 나타내는 면 개버딘으로 바버리(Burberry)라고 하는 것이 있다.

원래 영국의 바버리사의 등록상표이다. 경사에 쌍사를 사용하여 급경사인 우능의 가는 능선을 치밀하게 나타낸 면 개버딘에 특수한 방수가공을 시행한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실리콘이라던가 베란으로 방수가공을 시행하는 것이 많다. 화합섬 개버딘은 경사 밀도를 위사 밀도의 배라던가 2배반 정도로 하여 2/2 우능으로 제작한다. 수지 가공하여 테라던가 방추성을 좋게 한다. 개버딘의 염색은 흑색이나 감색이라던가 밝은 감의 옅은 다색이나 만다색(늑차를 갈아서 분말로 한 가루 차)이 많다. 광택을 없앤 건축 스테이플을 사용하는 것이 많다. 신사복, 외투, 여성복, 아동복, 슬랙스, 레인코트, 승마복, 신발 천감, 더스터, 운동복, 제복 등으로 사용한다.

* 경 4매능(Four-leaf Warp Twill)

면, 레이온, 비닐론, 비닐리덴,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등을 사용한 사문직으로 단사를 사용한 우경능 조직과 쌍사를 사용한 우경능이 있다. 단사를 사용한 것을 갈성이라고 한다. 갈성은 14's~10's의 태번수 단사로써 3/1 우경능으로 제작한다. 표백한다던가 무지염으로 한다. 카키색으로 염색한 것을 카키 드릴(khaki drill), 카키 클로스(khaki cloth)라고 한다. 내수 시장에서는 다 갈성이라고 한다. 표백한 것을 백갈성이라고 한다. 경사 밀도가 위사 밀도보다 현저하게 많기 때문에 능선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비에 젖을 때 빗방울이 흘러내리기 쉬워 군복이라던가 야외 작업복에 사용한다. 쌍사를 사용한

것을 웨스트 포인트라고 한다. 웨스트 포인트는 미국 육군의 제복지 규격이라던가 그것에 근사한 것을 가리킨다. 육군 규격은 경사 36's/2, 위사 25's/2 정소면사를 사용하고 폭 44/5inch, 108×60올/inch, 해군 규격은 경사 36's/2, 위사 24's/2 정소면사를 사용하여 폭 44/5inch, 108×58올/inch가 많다.

미국에서는 유니폼 트윌(Uniform twill)이라고 한다. 웨스트 포인트는 미국 육군 사관 학교의 소재지의 지명이다. 작업복, 제복, 운동복 등으로 사용한다.

* 고시보(Koshibo)

강한 T/M을 주어 평직으로 제작한 후 Rotary washer로 과도한 축소를 하여 요철을 부여한 직물을 말한다.

* 공단(sulk satin)

두껍고 무늬가 없는 주자직의 윤기 있는 비단을 말한다.

* 굴곡 능직(curved twill)

정통직, 완능직, 금능직을 적당히 조합하여 능선을 곡선으로 한 조직

* 그로스 그레인(Grosgrain)

견,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비닐론,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한 경무직이다. 원래는 견직물로써 경사에 가는 오건딘 꼬임의 생사를 사용하고 위사에 굵은 트럼꼬임생사를 한 개구에 여러 올씩 타입 하여 제작하였다. 경사의 밀도가 많기 때문에 굵은 위사의 군을 덮어서 직물 면에 황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이량은 포플린보다도 크다. 위사에 소모사라던가 면사 또는 스프사를 사용한 것 경위사 모두 소소사의 것도 있다. 마무리는 딱딱하고 촉감은 뽀뽀하다. 면 그로스 그레인은 경사에 36's~50's의 단사라던가 쌍사, 위사에 10's 단사, 40's/2, 30's/3 등을 사용하여 경위사의 밀도의 비를 3.5~5:1정도로 하여 평직으로 한다. 두꺼운 면직물이다. Grosgrain은 거친(gros=coarse) 낱알(grain=kernel)의 의미이고 그로그랑이라고도 한다. 여성

용 코트, 슈트, 드레스, 장식, 모자의 리본, 리본 등으로 사용한다.

* 그리션 조직(Grecian weave)

봉소직과 같은 조직. 경위사가 크게 뜨는 것을 그리션직이라고 한다. 허커백(huck-a-back weave)의 응용 조직의 하나이다.

* 금건(Shirting)

경위사에 30's 다 가는 단사를 사용하고 약간 치밀하게 제작한 얇은 평직 면포이다. 표백 또는 날염하여 사용한다. 셔팅의 경사30's, 위사 36's, 밀도는 72×69올/inch이다. 동일 규격으로써 폭 44인치, 60인치의 것으로 무지염이라든가 표백한다. 스프 혼방품도 적지 않다. 조포(粗布, sheeting), 세포(細布, shirting), 금건(shirting)은 기본적인 평직 면포이다. 3자의 차이는 사용하는 실에 있다. 사용 번수는 조포가 대체로 20's 이하 통상 12's~16's이고 세포가 20's~30's, 금건이 30's보다 가는 실이다. 바닥은 사용하는 실이 가늘게 됨에 따라 얇게 된다. 속칭 금건을 카라코라고도 부른다.

생지 금건에 캠브릭 마무리를 시행하여 낮은 광택을 부여한 얇은 표백 금건을 캠브릭(Cambric)이라고도 한다. 원래 아마로 제작한 얇고 견뢰한 마직물이었다. 현재 캠브릭(Cambrique)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한다. 이것은 표백, 무지염 등으로 하여 손수건이나 의류로 사용되고 있다. 캘리코(calico)는 날염 면포가 인도의 Calicut(현재의 Calcutta)로부터 유럽으로 간 것으로 날염 면포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명칭이 부여되었다. 현재는 영국에서도 일반 소비자의 용어로 되어 면 모슬린보다도 두꺼운 가정용 평직 면포의 일반적인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리넨 캠브릭은 프랑스의 캄브레이(Cambrai)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부여되었다. 용도로는 손수건, 내의, 에이프런, 셔츠, 칼라, 테이블보, 아동복, 슬리브, 잠옷, 안감, 커튼, 드로운 워크의 가공 원단 등이다.

* 급능직(steep twill)

정사각형의 의장지에 능선과 위사의 각도가 45°를 넘는 능직.

* 킁엄(Gingham)

Aus, 레이온, 비닐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의 염색사와 표백사 또는 색이 다른 염색사를 사용하여 새로 줄무늬라던가 격자 무늬를 나타낸 직물이다. 킁엄은 경위사에 20's, 30's 또는 40's 등의 단사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실에 따라서 20's 킁엄, 30's 킁엄, 40's 킁엄이라고 한다. 고급품은 정소면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실케트 가공을 하여 부드러운 광택을 부여한다. 제작사로 40's 이상의 세번수의 정소면사를 사용한 얇고 촉감이 부드러운 것을 제파(zephyr)라고 한다. 인도의 마드라스 배후지에서 제작된 격자 무늬 또는 세로 줄무늬의 면포에 인디아 마드라스(India madras)가 있다. 30's 전후의 단사를 사염하여 평직으로 한다. 줄무늬 비율의 배색으로 일종의 독특한 거친 맛이 있다. 염료에 토산품 천연 염료를 사용하지만 색에 따라서는 세탁하여 울어나오는 것이 있다. 색이 울어나오는 것이 명품이다. 견뢰도가 좋은 염료를 사용하여 구미에서 모방 제조되고 있는 것을 인디언 마드라스(Indian madras)라고 한다.

Gingham의 어원에 대하여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세로 줄무늬의 면포를 가리키는 말레이어의 gigan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설과 인도 원산지인 사염 평직 견포의 일종을 모방한 제품이 프랑스어의 킁엄(Gingamp)에서 시작하여 제작된 것으로써 그 지명이 직물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설이다. 블라우스, 원피스, 아동복, 파자마, 운동복, 에이프런, 앞치마, 커튼, 베드 스프레드 등으로 사용한다.

* 넵(Nap) : 순모 외투감의 직물. 182.88cm(72inch)로 짜서 147.32cm(58inch)로 완성하여 인디고 실 염색을 한다. 밀도는 2.54cm당 36올×48올 정도이며,

질이 좋은 것은 축융사를 사용하고 축융 가공할 때에는 조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공 공정 중 직물의 표면은 네핑(napping)되어 둥근 털무늬를 만드는데 휘트니(whitney)와 비슷한 것이 된다. 영국에서 유니온 냅(union nap)이라 불리는 것은 경사에 Ne40's의 면 2샵연사, 표면에 나오는 위사는 28.35g당 100.584m의 Z꼬임의 멍고우(mungo), 뒷면 위사는 28.35g당 49.378m의 Z꼬임의 쇼디(shody)를 쓰고, 밀도는 2.54cm당 경위 60올×48올 직물은 91.44cm당 737.1 gr이라고 되어 있다. 순모의 것은 28.35g당 228.6m의 S꼬임의 방모사, 위사는 28.35g당 283.464m의 Z꼬임의 방모사이며 밀도는 2.54당 경위사 56올×101올이다.

* 노일 클로스(Noil Cloth)

견, 레이온, 폴리에스터, 면 등을 사용하여 평직, 사문직 등으로 사용한다. 단순히 노일이라고도 한다. 경위사에 주방사라던가 견방주사를 사용하여 제작한 직물의 표면에 보풀을 나타낸 것이다. 제작사의 변수는 16's~40's 정도이다. 스프 혼방한 것을 사용한 것이라던가 경사에 인견사라던가 스펀 레이온을 사용한 것 등도 있다. 직물면에 주사 특유의 매듭이라던가 반이 나타나서 소박한 품미가 있다. 노일이라고 하는 것은 견방공정 중에 생기는 단섬유를 가리킨다. 주방사라던가 견방주사 등에는 노일이 원료 중에 포함되어 있고 또 노일이 갖는 맛이 직물의 특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물의 명칭으로 한 것이다. 무지염, 사염의 무늬, 날염한 것 등이 있다. 투피스, 블라우스 등으로 사용한다.

* 니논(Ninon)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등의 섬유를 사용한 평직의 특히 얇은 직물이다. 견 니논은 조직 사용하는 실, 중량, 폭, 길이 등 모두 시폰과 같으나 시폰이 정련하지 않고 생지인 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니논은 제작 후 반드시

정련하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촉감이 낭창 낭창하고 시폰과 같이 딱딱하지 않다. 무지 외에 평사라던가 제사로써 경사 줄무늬라던가 격자를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영국, 미국의 니논의 맛은 일본과 반대로써 시폰의 쪽이 부드럽고 니논의 쪽이 딱딱하다. 일본의 인견 니논은 인견 보일에 특허가 있었을 때 보일을 모방하여 제직을 시작하였다. 인견 보일이 경위사에 우연의 편연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에 저촉되지 않도록 경사에는 좌연과 우연을 교호하게 사용하고 위사에는 우연을 타입하여 보일과는 실의 사용을 변경한 것이다. 경위사 모두 13~16 tex의 생사, 레이온, 아세테이트사 사용하고 꼬임수는 보일과 같이 1,000T/M 정도였다.